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 내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지급... 민생안정 패키지 지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

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 할당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전했다.

간이지급명세서 내달 1일까지 제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민간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간이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받아 수급자격을 심사해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신속한 자료확보가 필수적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간이지급명세서→직접작성·변환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